

## 사료가격 10% 인상은 절대로 안된다

<한 국 가 금 협 회>

1971년 6월 28일부터 적용 시행키로 된 정부 당국의 환율인상조치에 따라 1971년 7월 3일 한국 사료협회의 임시총회에서는 배합사료가격을 10%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금일 현재(1971년 7월 13일) 각 사료공장에서는 6~12%의 가격인상을 실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1971년 7월 12일 정부당국에서는 별 난에 보도한 바와 같은 대책을 가지고 사료가격을 신고제에서 각 시도 관백이 사정하기로 환원 조치하였다 한다.

정부당국의 물가억제책은 양계가를 위하여 좋은 일이라 하겠으나, 그 대책에서 미흡한 점이 몇가지 있고 현재 각 사료공장의 동태를 보면 기왕 오른 사료가격을 다시 인하시킬 의사는 없는것처럼 보이며, 차제에 본 협회에서는 몇가지 점을 지적하여 정부당국과 사료협회에 사료가격 조정에 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국사료협회는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을 실시함에 있어 앞면에서 지적한 것처럼 몇가지 요인을 들고 있으나, 이 몇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10%를 인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금번 환율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의 적정가격은 중전 사료가격의 5% 내외의 인상으로 대책이 수립된다 하며, 이번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10% 인상이라는 통보는 차제에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함으로써 모든 비용을 실 수요자인 양계가에게 전부 부담시키려고 하는 인상이 짙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각 사료공장이 왜 항상 단미사료의 가격인상이 실시될 때 마다 그 부담을 실수요자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지와 왜 사료가격인하방침은 생각하지 못하는지를 묻고 싶다. 예를 들면 외국의 1톤 짜리 비닐포장지대는 현재 kg 당 50전~1원씩

의 비용을 요하는 현 사료포대 보다 kg 당 30 전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등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하면 사료가격을 인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이번 경우에도 한국 동물약품 공업협회에서는 인상된 환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특관세에서 공제받으므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실 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돌아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바 각 사료공장은 왜 과세표준을 인하여는 힘을 쓰지 않으며, 환율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을 꼭 양계가에게만 지워야 하는 가는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당국이 가격억제 대책으로 내세운 4개조항중 과세표준율의 인하와 사료조절자금의 지원은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만 하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계인에 대한 안정기금의 설치와 도입제의 수급조절을 좀 더 합리적이고 원시안적인 전지에서 국내계의 개량육종이라는 문제와 결부시켜 국내 양계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양계인 자신의 문제이다. 이번 기회야 말로 우리 양계인이 단결하여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란 개당 9원씩 생산자가 출하하는데 소매가격은 여전히 15원이다. 만일 생산자가 유통조직을 단순화 시켜 계란 개당 13원씩만 받을 수 있다면 사료가격의 인상은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과다 생산의 조절과 유통경로의 단순화는 양계인의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차제에 본 협회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계업자와 사료, 약품업자는 공동운명체이며 양계업에 불경기가 온다면 시기의 선후는 있겠지만 타 산업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미칠것이며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양계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